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10)

주제: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만 해협 안보

중국문화대학교 111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10 회 강연에서는 국립대만사범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임현삼(林賢參)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만 해협 안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임 교수는 일본 외교와 안보 정책,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중국 대외 전략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안전 싱크탱크의 멤버였다. 이번 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담을 갖게 된다. 본 강연은 시사(時事)에 발 맞추어 학생들로 하여금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임 교수는 우선 인도·태평양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인도·태평양이 강권 경쟁의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부상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어 미국·일본·인도·호주의 협의체와 해군 합동 훈련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잇는 서태평양 제 1 열도선 중심의 대만과 지연 전략 가치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 이후 서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SLOCs)는 세계 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해양경제무역의 중요요소가 되었으며, 세계 인구 절반의 경제 성장 중심으로 해상교통로(SLOCs)의 안전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태평양은 해상교통로(SLOCs)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 및 외교 조치와 미국·일본·인도·호주 등의 국가들과의 자유로운 항행간의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로 인해 권력 경쟁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공간이 되었다. (1)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6 년 8 월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을 제시하였다. (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 년 11 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고, 미국·일본·인도·호주(QUAD) 4 자간 협의체를 추진하였다. (3) 차이잉원(蔡英文) 정부 수립 이후 서태평양 제 1 열도선의 중심에

위치한 대만 해협의 정세는 긴장 상태이며, 외신은 대만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았다.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의 정책의 개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6년 8월 앞서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에서 인도를 주요 협력 대상으로 삼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일본 경제 재생을 이끌겠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인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성장전략」 - 「인프라 시스템 수출 전략」: ASEAN,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 지역에 전력과 교통 등 민생 인프라를 수출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성장과 재생, 일본의 외교적 위상과 대외 경제 협력의 강화, 해외 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 염가(廉價) 수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QUAD의 인도·태평양 인프라 사업 합작

(1)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8년 6월 일본이 인도·태평양의 인프라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재정 구조를 만들고, 3년간 총 500억 달러를 투자 및 용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2018년 11월 일본·미국·호주는 「인도·태평양 인프라 투자를 위한 세 기관 협력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 및 협력 각서를 발표해 인도·태평양 영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였다. (3) 2019년 11월 미국은 「푸른 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계획을 발표하여, 일본·미국·호주 3국이 공동으로 주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로, 항구, 에너지 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 2022년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제안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에서 쿼드(QUAD)를 포함해 총 14개국이 참여를 표명하고 무역, 공급망, 인프라와 탄소 감축, 탈세와 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QUAD 해군연합훈련

미국과 인도 양국의 해군 합동훈련인 ‘말라바르(Malabar)’ 훈련은 1992 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2007 년에는 일본·호주·싱가포르를 초청하였다. 일본은 2016 년, 호주는 2020 년 ‘말라바르(Malabar)’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 QUAD 는 대화(對話)와 해군 합동 훈련 메커니즘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만 해협 안보

대만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서태평양 제 1 열도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해역의 해양 운송 경로의 안전과 관련이 있어, 중국의 태평양 진출입의 핵심 위치가 되었다.

(1) 2021 년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 회의」와 정상회담, QUAD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해협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 2021 년 이후 일본 고위층의 대만·일본의 순망치한(唇亡齒寒) 관계에 대한 담화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대만에 (전쟁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본에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일본·미국 동맹에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다. 2022 년 1 월 미국과 일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일본자위대와 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였다. (3)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 대만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삼았고, 바이든 정부는 미·중 대립을 '민주 vs 독재'로 규정하였다. 2022 년 2 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여 미국이 지역 안팎의 파트너들과 함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연 말미에 임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바이든 집권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굳어졌으며, 일본·미국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 회의와 정상회담, QUAD, G7 성명 등을 통해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대만 무력 위협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2) 중국 공산당은 이미 미국·일본의 대만해협 개입을 작전 계획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는 논리는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3) 「미중대항」의 국제 사회의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일본은 미국에 종속되어 중국에 저항하고 대만을 보호하며, 「미중대항」 관계는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일본이 일중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網頁連結 :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撰稿: 涂玉璽 日文系·副教授)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